

지역 매 아 리

완주, 2020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내년도 국가예산 3623억원을 확보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를 거둔 완주군이 2020년도 국가예산 발굴을 위해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 완주군은 소득과 삶의 질 높이는 대한민국 으뜸행복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2020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2차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정시책, 정부 경제 정책방향, 생활밀착형 SOC사업 등 군 정책과 연계한 신규 국가예산 사업 85건 총사업비 3507억원(국비 1996억) 규모의 미래성장 동력 사업 발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발굴된 사업의 확보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내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사업조서를 보완한다.

이외에도 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정책 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구체화시켜 도 핵심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을 기하고, 내년 2월까지 계속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025년 15만 동농복합 자족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절대적이다"며 "국비확보에 대한 절실함, 사명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발굴하고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이종복기자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임

라면 30상자 이웃에 전달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임 여성회원(회장 이영이) 20여명은 라면 30상자를 구입 연말연시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였다.

교월사모는 그동안 불법쓰레기 투지 지역에 화단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 내 환경정화활동 및 자체 방역 봉사 등 지역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갖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당신멋져봉사대'를 조직하여 매월 무료장수 사진을 촬영하여 기증하는 등 따뜻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모범이 되고 있는 단체이다.

이영이 교월사모 여성회원 회장은 "작은 도움이라도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더불어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우근 교월동장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잊지 않고 꾸준한 이웃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교월사모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테크노밸리 2개사 투자협약

영산글로벌넷·엘에스엠트론 신규투자 결정... 연구개발 지속 추진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개 기업의 신규투자가 이뤄졌다.

완주군과 전라북도는 지난 21일 완주군청에서 (주)영산글로벌넷(대표 박종업)과 엘에스엠트론(주) 전주공장(공장장 권오석)의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투자를 결정한 2개 기업 대표를 비롯해 박성일 완주군수,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여했다.

완주군 완주산업단지에서 기업을 운영해 오던 (주)영산글로벌넷은 상용차 CKD, DKD(완성차 분해)를 전문으로

하는 수출전문기업으로 1999년 9월 회사설립 이후 관련 산업을 활성화 해 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번에 특장차 사업 확대를 위한 양산라인 구축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

트랙터 분야의 글로벌 일류기업인 엘에스엠트론(주) 전주공장은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기계 및 첨단부품분야에서 성장해 가고 있으며, 이번 신규투자는 엔진공장과 연계한 것으로 부품의 품질향상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성일 완주군수는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신규투자를 결정한 2개 기업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완주군 관내 기업이 성장을 거듭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재투자 하는 모습은 우리가 지향하는 산업의 발전방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투자기업들이 새해에도 꾸준한 성장을 이루길 바라고, 분업을 앞두고 있는 산업단지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생활개선연합회는 인재양성에 보탬이 되어주고자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인재양성에 조그마한 보탬 되고파"

김제생활개선회 인재양성 장학금 기탁

김제시생활개선연합회(회장 심명순)는 지난 21일 2018년도 자체 성과발표회를 통한 활동상황을 평가했다.

특히 올해는 생활개선회 60년을 맞아 800여 명의 전회원이 참석 어울한마당 문화발표회를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고 밝은 미래농업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선포했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생활개선회의 활동 목표로 추진한 바 19개 읍면 동회의 어르신 공경 효 잔치를 비롯한 김장김치 나누기, 마을환경 가꾸기 및 경로당 위문과 시연합회의 연중 자원봉사센터 활동참여 줌도리 쌀 이웃사랑 실천, 관내요양원 김장김치 나누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꾸준한 봉사활동을 하여왔으며 후계세대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어

주요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

2018년 1월 연시총회시에도 1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김제시장장학재단 10주년을 맞아 여 꾸준한 지원으로 김제시에서 감사패를 수상하기도 하였다.

김제시생활개선회는 농촌지역 19읍면동 800여 회원이 '창조적인 삶, 행복한 농촌, 농촌 교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감'을 목표로 60년 동안 어려운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도 활력 있고 풍요로운 농업·농촌을 가꾸어 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날 심명순회장은 우리들의 조그만 관심과 사랑이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음에 자부심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헌신 봉사하는 단체로 함께해 나갈 것을 다짐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내년도 예산 7827억원 확정

관광분야 246억·국도 및 지역개발분야 1011억원 등 편성

김제시는 2019년도 분예산을 7,827억원 규모로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78억원(25.3%)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보다 1,541억원(27.2%)이 증가한 7,212억원, 특별회계는 371억원(6.4%)이 증가한 61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647억원, 지방교부세 3,234억원, 조정교부금 115억원, 국도비 보조금 2,916억원, 보전수입 등 300억원이다.

분야별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 246

억원, 환경보호 분야 871억원, 사회복지분야 1,748억원, 보건분야 11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971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38억원, 수송 및 교통 309억원, 국도 및 지역개발분야 1,011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마을환경지킴이제 18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405억원 △호재(제상방죽) 주변 정비사업 20억원 △수영장 방수 및 타일교체공사 7억원 △요촌동중심사가지형 도시재생뉴딜 75억원 △김제 선암 자연휴양림 조성 42

억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9.6억원 △김제 축산발전지역 구조개선 140억원 △청년공간 아도창업초기비용 지원 6.5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3억원 등이 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경제도약하는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뒀으며, 소중한 예산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우수지역 선정

완주중 통학로 인도개설·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 호평

완주군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완주군은 201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3년간의 최종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완주군은 안전문화운동 주민자율추진체인 안심마을 지킴이 활동, 벽화마을 조성, 안전통학로 개설, 농약 안전 보관함 등의 분야별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 운동을 통한 지역민의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되면서 지역의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성

공적으로 추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사업지구인 봉동읍 안심마을 지구(장기리 일원)에 완주중 통학로 인도개설, 파출소 앞 회전교차로 개선, 범죄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 가로등 설치 등의 안전인프라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의 안전지수를 향상 시켰다.

또한 '안심마을 지킴이' 활동을 통한 주민자율의 안전문화운동 확산으로 지역민의 안전의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완주군의 이러한 노력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전국 지자체 안전수준을 발표한 2018년 지역안전지수결과에서 입증되기도 했다.

완주군은 안전지수 평가 7개 분야(교통, 화재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감염병)에서 모두 좋은 평가를 받아 전북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군단위로도 8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역의 복지는 안전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목표에 따라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안전한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성덕면 복지기동대, '사랑의 산타' 행사

김제시 성덕면 희망드림 복지기동대(대장 최경국)는 지난 21일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어린이 50세대를 위해 선물박스, 쌀, 케이크를 나누어주는 산타행사를 진행해 정겨운 시골공동체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성덕면 복지기동대는 21일 산타행사에 앞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광정근) 위원들로부터 50명의 대상자를 추천받아 선정하였고,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도록 햄드레이크, 초코파이, 두유, 곡물과자 등을 포장하는 등 행사 준비에 정성을 다했다.

특히 소석마을의 고상영 씨와 모산교회 김용덕 목사님은 그동안 복지기동대의 선행에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고상영 씨는 대상자들에게 각각 쌀 10kg을 기부했으며 모산교회 김용덕 목사는 직접 만든 빵을 예쁘게 포장하여 전해주었다.

복지기동대는 산타복장을 갖춘 후 50여명의 대상자들에게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어 주었으며, 선물을 받은 독거노인의 감격해하는 모습과 저소득가정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보여 뿌듯해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